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키움증권

미 증시, 유가 부담 속 4월 FOMC 결과 등으로 소화하며 혼조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9일(수) 미국 증시는 인텔(+12.0%), 마이크론(+2.8%) 등 반도체, 테크주 실적 기대감에도,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에 따른 WTI 상승(+8.6%), 매파적이었던 4월 FOMC 결과, M7 실적 대기심리 등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한 채 혼조세 마감(다우 -0.57%, S&P500 -0.04%, 나스닥 -0.6%).

4월 동결은 기정사실화되었지만, 12명의 위원 중 금리 동결을 반대한 인원이 4명(동결 3, 인하 1)으로 1992년 이후 반대 인원이 가장 많았던 회의였음. 또한 성명서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중동 지역 사태로 인해 높은 수준",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경제 전반의 높은 불확실성 초래" 등의 다소 매파적인 표현을 삽입한 것으로 확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증시 중립적이었음. 파월 의장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것이지만, 위원들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급격한 정책 전환 가능성을 일축. 또 추후 금리 변화를 줄 시 신호를 미리 줄 것이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그림자 의장으로 남을 생각이 없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

4월 FOMC 이후 Fed Watch상 연내 금리 동결 및 27년 12월 첫 금리인하가 컨센서스로 유지되고 가운데, 미 10년물 금리는 4.4%대로 상승한 점을 미루어보아, 이번 회의는 다소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판단. 다만, 연준ㅇ 매파적인 입장을 제시한 근본적인 배경은 미-이란 전쟁으로 인하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에서 기인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는 향후 "미-이란 협상 완료 -> 호르무즈 해협 개방(+UAE의 OPEC 탈퇴 효과) -> 유가 하락 -> 에너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후퇴"의 경로가 형성될 시, 연준에서도 덜 매파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음을 시사. 또한 원자재, 채권 시장과 달리,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전쟁 리스크에 상당한 내성이 생긴 상태라는 점도 상기해볼 시점.

사실 현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4월 FOMC, 미-이란 협상보다 M7 등 주도주 실적 이벤트가 더 중요한 상태. 이런 측면에서 장 마감 발표한 하이퍼스케일러 업체 4개사 실적 결과를 금일 본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관건이 될 예정.

일단 이들 실적 결과를 확인해보면, 알파벳(클라우드, 검색, 광고 등 주력 사업 호조로 실적 컨센 상회 + 가이던스 1,800~1,900억달러로 상향, 시간외 +6%대), 아마존(AWS 사업 호조 등으로 실적 컨센 상회 but FCF 12억달러로 기존 259억달러에서 감소 + 가이던스 2,000억달러 유지), 시간외 +2%대 내외), MS(애저 클라우드 사업 호조로 실적 컨센 상회 + 가이던스 미발표, 시간외 +2%대 내외) 등 3개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은 시간외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메타는 시간외 6%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광고매출 급증에 따른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가이던스를 1,250~1,450억으로 상향한 배경을 데이터센터 비용 상승에서 기인했다고 밝힌 점이 주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이처럼 메타를 제외하고, 여타 3개 하이퍼스케일러사들의 시간외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들 4개사 26년 CAPEX 합산금액이 약 6,600억달러대로 상향됐다는 점(기존 6,300억달러~6,500달러) 등은 AI 수요 확장 및 투자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 이는 추후 국내 반도체주의 이익 컨센서스 상향에 추가적인 명분을 제공할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오픈 AI발 악재, UAE의 OPEC 탈퇴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 여파로 하락 출발했으나, 시게이트 및 블룸에너지의 시간외 주가 급등, 삼성전자 1분기 컨퍼런스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하며 반등에 성공한 채로 마감(코스피 +0.8%, 코스닥 +0.4%).

금일에는 유가 상승 부담, 매파적인 동결이었던 4월 FOMC vs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CAPEX 상향 및 시간외 주가 강세, 퀄컴의 시간외 16%대 주가 급등(스마트폰 시장 바닥 확인 기대감 등)과 같은 상하방 요인의 혼재로 반도체 vs 여타 업종간의 차별화 장세를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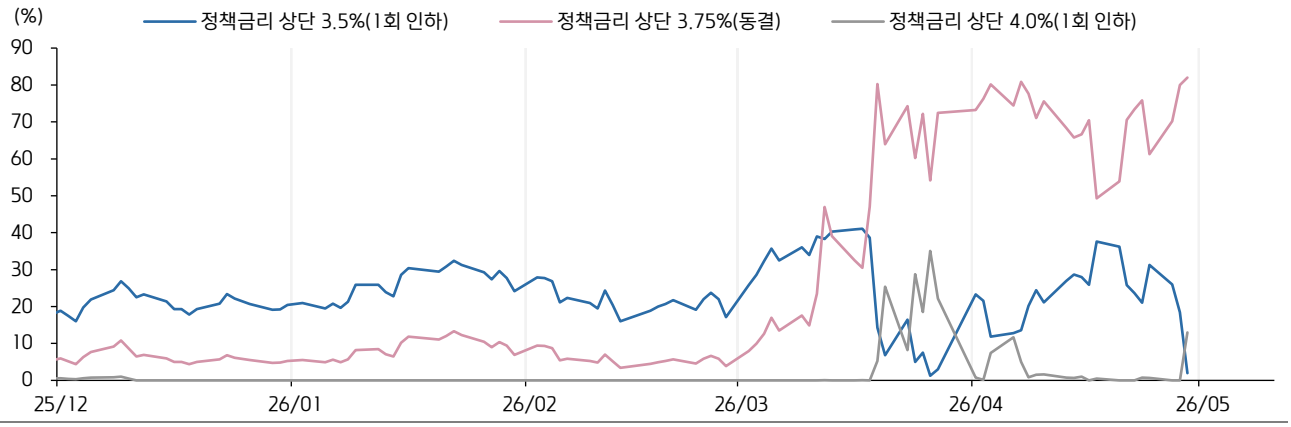
이처럼 금일에는 4월 FOMC, M7 실적 결과를 시장 참여자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지수 방향성이 모호할 수 있는 하루이기는 함. 그러나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투자 포인트가 유효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령, MSCI 지수 PER 관점에서 봐도 선진국(19.4배), 신흥국(11.8배), 미국(21.1배), 일본(17.8배) 등 여타 증시에 비해 한국(6.8배)의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 수준.

단순 주가 상승률, BM 지수 내 비중 관점에서는 코스피의 4월 30%대 급등이 MSCI 리밸런싱 당일인 오늘 외국인들의 기계적인 비중 조절을 하게 만들 소지가 있기는 함. 하지만 이 같은 "이익 모멘텀 강화 +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의 투자 포인트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의 한국 증시 매수 유인을 확대시킬 것으로 판단

이 같은 투자 포인트의 상당부분을 압도적인 이익 모멘텀이 생성되고 있는 반도체가 기여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 동시에 반도체 이외에도 조선, 방산, IT 하드웨어 등 여타 업종들도 이익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코스피 추가 레벨업에 일조할 수 있는 요인.

더 나아가, (최근 2~3거래일 간 주가가 반응하기는 했지만) 이들 업종 중 증권, 건강관리, 화장품, 호텔/레저 등과 같은 업종은 4월 이후 코스피에 비해 수익률 상승 탄력이 약했던 업종이라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 추후 반도체, 건설, 전력기기, IT하드웨어 등 4월 주도업종들이 차익실현 압력 등으로 일시적인 숨고르기 과정에 있을 때, 순환매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단기 대응 전략에 반영해볼만 하다고 판단.

Fed Watch 상 12월 FOMC까지 금리 인하 확률 변화 : 중동발 에너지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른 매파적인 의사록으로 올해 금리동결이 컨센서스로 변함없이 유지 중



출처: Fed Watch,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4월 FOMC 이전 연준의 첫 금리인하 예상 시점: 내년 12월 인하가 컨센서스

CME FEDWATCH TOOL - CONDITIONAL MEETING PROBABILITIES

MEETING DATE	225-250	250-275	275-300	300-325	325-350	350-375	375-400	400-425
2026-04-29	0.0%	0.0%	0.0%	0.0%	0.0%	100.0%	0.0%	0.0%
2026-06-17	0.0%	0.0%	0.0%	0.0%	3.2%	96.8%	0.0%	0.0%
2026-07-29	0.0%	0.0%	0.0%	0.1%	7.2%	92.6%	0.0%	0.0%
2026-09-16	0.0%	0.0%	0.0%	0.4%	10.7%	88.8%	0.0%	0.0%
2026-10-28	0.0%	0.0%	0.0%	0.4%	10.6%	88.0%	1.0%	0.0%
2026-12-09	0.0%	0.0%	0.0%	0.6%	12.1%	86.3%	1.0%	0.0%
2027-01-27	0.0%	0.0%	0.0%	0.6%	11.3%	81.2%	6.8%	0.1%
2027-03-17	0.0%	0.0%	0.0%	0.6%	10.9%	78.7%	9.5%	0.3%
2027-04-28	0.0%	0.0%	0.0%	0.5%	10.2%	74.4%	14.0%	0.9%
2027-06-09	0.0%	0.0%	0.0%	1.2%	15.0%	69.9%	13.0%	0.8%
2027-07-28	0.0%	0.0%	0.1%	2.1%	18.6%	66.1%	12.2%	0.8%
2027-09-15	0.0%	0.0%	0.5%	5.4%	27.9%	55.6%	9.9%	0.6%
2027-10-27	0.0%	0.2%	1.8%	11.3%	35.2%	43.5%	7.5%	0.5%
2027-12-08	0.1%	1.6%	10.4%	32.9%	42.7%	11.0%	1.1%	0.1%

출처: Fed Watch,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4월 FOMC 결과 확인 이후 연준의 첫 금리인하 예상 시점: 4월 FOMC 이후에도 내년 12월 컨센서스 유지

CME FEDWATCH TOOL - CONDITIONAL MEETING PROBABILITIES

MEETING DATE	250-275	275-300	300-325	325-350	350-375	375-400	400-425	425-450
2026-06-17	0.0%	0.0%	0.0%	1.4%	98.6%	0.0%	0.0%	0.0%
2026-07-29	0.0%	0.0%	0.0%	3.4%	96.5%	0.0%	0.0%	0.0%
2026-09-16	0.0%	0.0%	0.0%	3.4%	95.9%	0.7%	0.0%	0.0%
2026-10-28	0.0%	0.0%	0.0%	3.3%	92.8%	3.8%	0.0%	0.0%
2026-12-09	0.0%	0.0%	0.0%	2.9%	82.9%	13.7%	0.4%	0.0%
2027-01-27	0.0%	0.0%	0.0%	2.5%	71.0%	24.0%	2.4%	0.1%
2027-03-17	0.0%	0.0%	0.0%	2.1%	59.9%	31.6%	5.9%	0.4%
2027-04-28	0.0%	0.0%	0.0%	1.9%	53.1%	35.0%	8.9%	1.1%
2027-06-09	0.0%	0.0%	0.1%	4.1%	52.3%	33.8%	8.6%	1.0%
2027-07-28	0.0%	0.0%	0.4%	7.3%	51.1%	32.1%	8.1%	1.0%
2027-09-15	0.0%	0.1%	1.8%	16.6%	47.0%	27.0%	6.6%	0.8%
2027-10-27	0.0%	0.9%	8.3%	29.9%	38.3%	18.1%	4.1%	0.5%
2027-12-08	0.5%	5.0%	20.2%	34.5%	27.1%	10.3%	2.1%	0.2%

출처: Fed Watch,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연초 이후 미국 S&P500(흰색), WTI(파랑), 미 10물 금리(빨강) 변화: 유가,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구간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전쟁 리스크에 대한 내성이 생긴 가운데, 실적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는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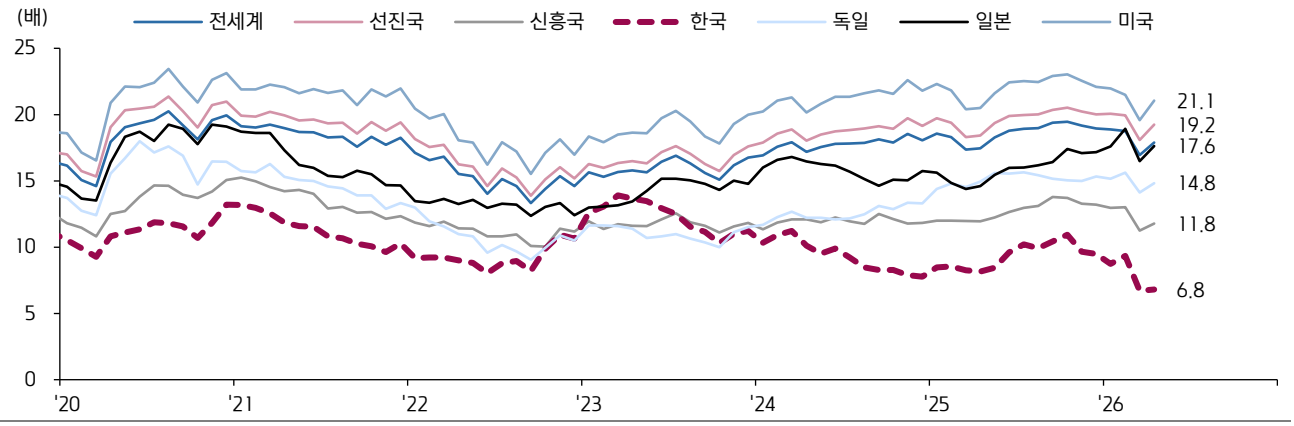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의 시간외 주가 변화(오전 7시 20분 기준)

아마존닷컴	04:59:59 | AMZN	263.04 +3.34 (+1.29%) 275.62 +12.58 (+4.78%)
마이크로소프트	04:59:59 | MSFT	424.46 -4.79 (-1.12%) 431.10 +6.64 (+1.56%)
알파벳 A	04:59:59 | GOOGL	349.94 +0.16 (+0.05%) 373.09 +23.15 (+6.62%)
메타	04:59:59 | META	669.94 -1.40 (-0.21%) 632.36 -36.76 (-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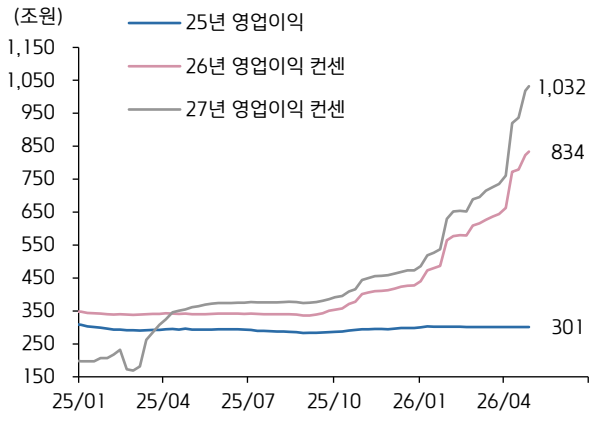
출처: Investing.com,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MSCI 지수 기준 주요국 선행 PER 비교: 4월 30% 폭등에 따른 단순 주가 속도 부담은 존재하지만, 여타 증시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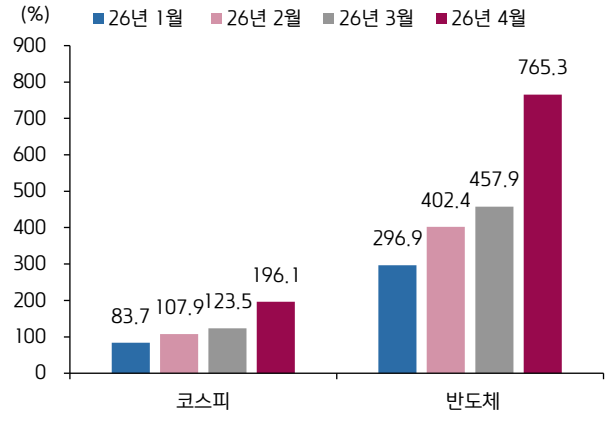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의 26,27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화: 1분기 실적 시즌 이후 이익 모멘텀 가속화가 재개되고 있는 중이며, 이는 코스피 신고가 랠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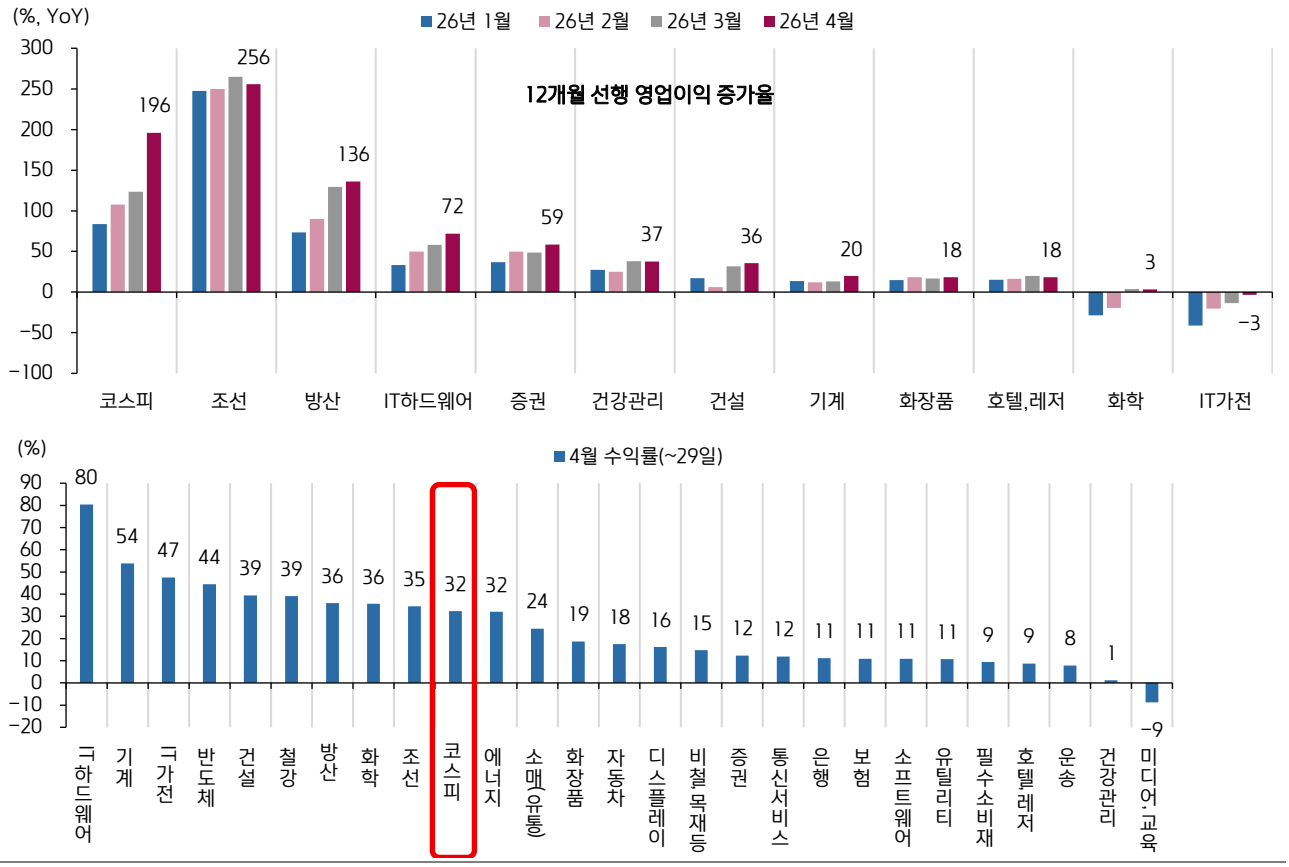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와 반도체의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증가율(YoY) 월별 변화: 코스피 이익 모멘텀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만들어 내고 있는 만큼, 반도체 비중 확대 전략은 여전히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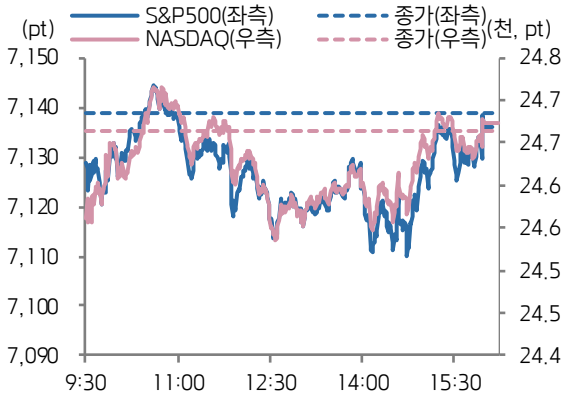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연초 이후 이익 모멘텀 개선세 지속 업종(위쪽), 4월 수익률(아래쪽): 그러나 반도체 이외에도 조선, 방산, IT하드웨어 등 여타 업종들도 이익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 더 나아가, 이들 중 증권, 건강관리, 화장품, 호텔/레저 등과 같은 업종은 4월 코스피 대비 성과가 부진했던 업종이라는 점에서 추후 순환매 효과를 누릴 가능성도 단기 대응 전략에 반영해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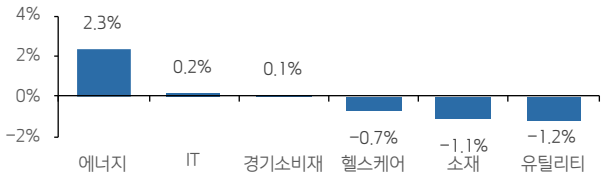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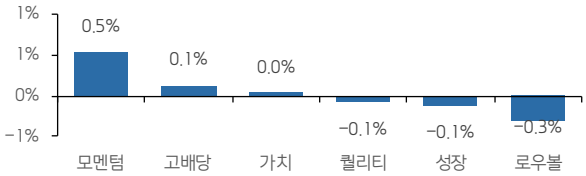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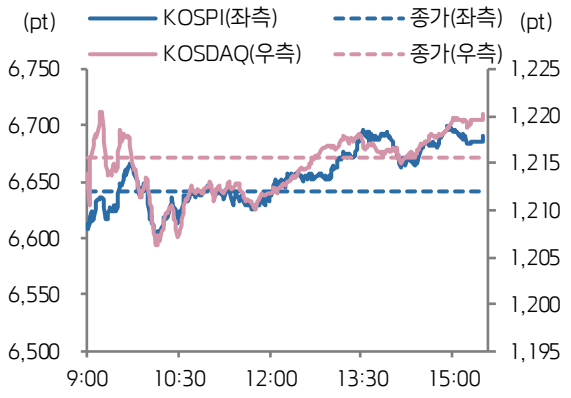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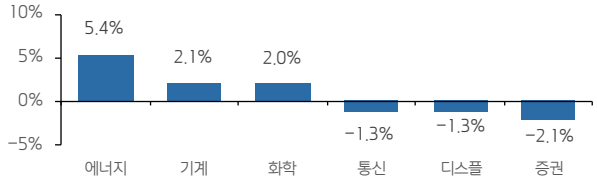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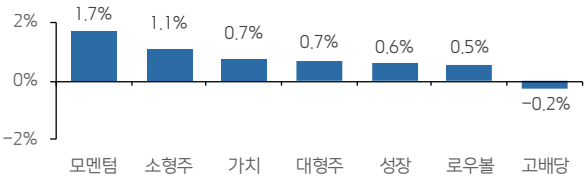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70.17	-0.2%	-0.62%	GM	76.62	-2.95%	-5.78%
마이크로소프트	424.46	-1.12%	-12.23%	일라이릴리	851.21	-2.61%	-20.79%
알파벳	349.94	+0.05%	+11.8%	월마트	128.01	+0.33%	+14.9%
메타	669.12	-0.33%	+1.37%	JP모건	309.25	-0.71%	-4.03%
아마존	263.04	+1.29%	+13.96%	엑손모빌	154.67	+2.73%	+28.53%
테슬라	372.80	-0.86%	-17.1%	셰브론	192.22	+2.05%	+26.12%
엔비디아	209.25	-1.84%	+12.2%	제너럴일릭트릭	128.01	+0.3%	+14.9%
브로드컴	405.45	+1.41%	+17.15%	캐터필러	810.05	-0.96%	+41.4%
AMD	337.11	+4.3%	+57.41%	보잉	224.11	-2.86%	+3.22%
마이크론	518.46	+2.81%	+81.65%	넥스트에라	94.17	-2.4%	+17.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690.90	+0.75%	+58.77%	USD/KRW	1,488.50	+1.04%	+3.4%
코스피200	1,006.59	+0.76%	+66.11%	달러 지수	98.92	+0.29%	+0.61%
코스닥	1,220.26	+0.39%	+31.85%	EUR/USD	1.17	-0.3%	-0.59%
코스닥150	2,061.08	+0.24%	+33.2%	USD/CNH	6.85	+0.11%	-1.84%
S&P500	7,135.95	-0.04%	+4.24%	USD/JPY	160.41	+0.49%	+2.36%
NASDAQ	24,673.24	+0.04%	+6.16%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8,861.81	-0.57%	+1.66%	국고채 3년	3.525	-0.5bp	+57.4bp
VIX	18.81	+5.5%	+25.82%	국고채 10년	3.842	-2.3bp	+45.7bp
러셀2000	2,739.47	-0.6%	+10.38%	미국 국채 2년	3.947	+11.1bp	+47.4bp
필라. 반도체	10,271.30	+2.35%	+45.01%	미국 국채 10년	4.430	+8.4bp	+26.3bp

다우 운송	20,531.30	-0.97%	+18.29%	미국 국채 30년	5.001	+6.7bp	+15.8bp
상해종합	4,107.51	+0.71%	+3.49%	독일 국채 10년	3.110	+4.3bp	+25.5bp
항셍 H	8,805.60	+1.86%	-1.21%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7,496.36	+0.79%	-9.06%	WTI	106.88	+6.95%	+87.48%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118.03	+6.08%	+93.97%
Eurostoxx50	5,816.48	-0.34%	+0.43%	금	4,561.50	-1.02%	+3.51%
MSCI 전세계 지수	1,067.56	-0.13%	+5.22%	은	71.57	-2.25%	+1.37%
MSCI DM 지수	4,614.35	-0.53%	+4.15%	구리	587.85	-0.66%	+3.46%
MSCI EM 지수	1,616.88	-0.8%	+15.13%	BDI	2,677.00	+0.41%	+42.62%
MSCI 한국 ETF	153.96	-0.27%	+58.36%	옥수수	477.75	+0.47%	+5.12%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653.00	-0.72%	+22.92%
비트코인	75,654.63	-1.06%	-13.68%	대두	1,197.00	+0.65%	+11.43%
이더리움	2,239.98	-2.42%	-24.77%	커피	290.70	+0%	-10.8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당사는 4월 29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